since 1996 28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2024년 2월 21일 수요일(水) I 제5369호

대구광역일보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 거부 중단하라”

참여연대,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진료 거부 즉각 철회하라” 촉구

〈관련기사 2면〉

의료대란에 대구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시민단체는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 거부 당장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구·경북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20일 자료를 내고 “의사들은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 거부를 중단하라”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진료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들의 집단적 진료 거부는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의료인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면 오히려 노동조건의 개선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을 주장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대다수 국민이 의사 부족 문제에 공감하게 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민 76%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부정적 답변은 16%뿐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오히려 국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의협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수많은 비극에 대해서는 대안을 말하지 않고 의료수가 인상만 주장한다”며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를 넘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는 선택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은 과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그 의사들인가”라며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 거부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사진은 질문에서 출발 개념에 이르는 경북형 교실 수업

경북교육청 “질문이 넘치는 교실로 교육 혁신”

초등학교 질문 기반 수업 정착
교사수업 역량 높이는 데 도움

경북교육청이 올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질문이 넘치는 교실’로 수업 혁신을 이룬다.

이 계획은 생성형 AI, 에듀테크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청은 △질문하는 학교 문화 조성 △학생 질문 능력 신장 △학생 질문 기반 수업 실천 △질문 기반 수업 나눔 확산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과 일반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초등학교에 대해 도 지정 연구학교 1교와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 8교를 중심으로 교과 중심 수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우수사례를 공유, 질문 수업의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팀(1팀)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학교의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 질문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수업 나눔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 수업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3~6학년용 ‘질문 공책’을 보급해 학생들의 질문 생성 능력을 높인다.

호기심에서 출발한 질문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탐구하는 과정으로 배움의 깊이를 나누는 학교 단위의 학생 질문 축제, 교육지원청 단위의 사제동행 질문 대회, 도 단위의 사제동행 질문 대축제 등을 연다.

경북교육청은 이 계획이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질문 기반 수업을 정착시키고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주도의 ‘질문이 넘치는 교실’은 교실 수업 혁신의 밑거름”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소방, 119구급 비상 근무…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종료 시까지 비상운영

경북도 소방본부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예상됨에 따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19구급 비상 활동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집단행동에 대비,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집단행동 참여 의료 기간 파악, 구급상황 관리센터 인력 및 수보대 증설, 예비구급대 운영, 진료 가능 병원안내 등을 위한 119종합상황실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통신망 및 핫라인 점검 등을 한다.

집단행동 기간 상담 및 누리집 게재로 진료 가능 의료기관 안내, 중증 환자 등에 대한 군 병원 등 대체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응급환자 장거리 및 병원 간 이송 시 119구급차 및 구급 헬기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의료정보시스템(e-gen),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경북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실 등의 진료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 가능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고 응급실과 119구급차의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시, 2025년 국비 8조4000억원 목표

지방재정 집행상황점검
집행률 제고 방안 논의

대구시는 20일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가졌다.

시의 20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4000억원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 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올해 확보액인 8조 1587억원에서 2400억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다.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의 목표액도 올해 확보액 4조 751억원에서 1200억원 증액한 4조 2000억원으로 정했다.

지난 16일까지 집계한 투자사업 기준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신청액은 4조 4000억원으로 신청 대비 반영률을 감안했을 때 3000억원 이상의 추가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국비 전략 보고회에서 신청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로 전년 대비 신청액의 5% 이상 증액 신청을 목표로 잡았다.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TK신공항 건설(2조 5768억원), 달빛철도 건설사업(4조 5158억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국비 신청액 증액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신공항철도 건설(2조 7382억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1조원)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UAM 지역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사업(3600억),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215억),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200억) 등이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대책을 바탕으로 2월 말까지 추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3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4월에 국비 신청을 완료한다.

부처안 편성이 시작되는 5월부터 정부예산 국회 의결이 완료되는 12월까지는 행정·경제 양 부시장 중심의 투톱(Two-Top) 체제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해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이어간다.

국비 전략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조여은 기자

단체장 일정

최재훈 달성군수는 21일 오후 정월대보름을 맞아 화원읍, 가창면 경로당들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사를 건넨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21일 오전 사단법인 노계박인로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한판붙자
2월 26일(월)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024제10회 대구광역일보배 전국아마골프대회
D-5

전공의들 병원 떠났다…의료대란 시작됐다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55%인 6415명
사직서제출 25%근무지이탈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6곳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인턴
400명넘어 의료대란 현실화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소속 전공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자 중 25%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단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자의 25%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한 전공의를 제외한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전날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4건이었고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 있었다.

▣ 대구 심각한 의료공백 현실화

대구지역 전공의와 인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 심각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6곳에 따르면 전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인턴들은 400명이 넘는다.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와 인턴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19일 기준 레지던트 147명 중 138명이, 인턴 146명 중 14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북대병원은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상황실 가동 등을 통해 진료 공백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인턴 28명 중 전체가, 전공의 59명 중 53명 사직서를 냈다.

칠곡경대병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대병원도 인전 42명 중 전체가, 전공의 119명 중 23명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사의 수는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오는 오후 2시가 넘어야 정확한 사직서 제출 인원이 파악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필수 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어쩔 수 없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교수들 당직 안간힘

현재 교수들이 당직을 서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등도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전공의 83명(지난 19일 오후 2시 기준)이 가운을 벗었다.

대구파티마병원도 지난 19일 기준 전공의 51명 중 14명이, 인턴 18명 중 9명이 사직서를 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사직서를 내는 전공의 등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19일 오전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했다. 현재까지 전공의 182명 중 2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의료 차질에 대비해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의 인원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2시가 넘어야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의료 공백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오전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 비상진료대책 발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에게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은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이송지침 적용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 진료시간 확대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 응급의료체계 유지 △보건소 연장 진료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이다.

대구시도 지난 6일부터 시 및 9개 구·군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과 공공·응급의료기관 중심 사전 점검 등을 지시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8개 구·군 보건소 진료시간 연장,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연장, 전문의 당직체계 운영, 경증·중등증 환자 2차병원, 증상별 전문병원 분산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지역 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과 법적 부담 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의대생 동맹휴학 실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 휴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총 113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칙에 따라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을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대학은 총 7곳, 학생 수는 113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휴학 허가가 이뤄졌다. 각각 군 휴학(2명)과 개인사정(2명)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129명이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 중에서는 개인 사정 휴학도 섞여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업거부 등 단체 행동이 확인된 곳은 7개교로 파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서는 단체행동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 대표 면담, 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각 대학 사정을 고려해 단체 행동이 확인된 대학 이름과 참여 인원 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대표자들이 20일을 동맹휴학 '디데이'로 삼은 만큼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들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의대생들은 총 2만여명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모두 승인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각 대학에 휴학 요건과 처리 절차 등을 세밀하게 따지도록 당부하면서 대학들이 이 같은 목적으로 접수한 휴학계는 승인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휴학과 함께 의대생들의 단체 수업 거부 움직임도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충남대 의대 1~4학년 학생들은 이날 예정된 수업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고,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의대생들도 학교 측에 수업 거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이 확산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엄격한 학사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GYEONGBUK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확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단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한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헌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아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대구 북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 북구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4회 임시회 회기결정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의결했다.

임수환(고성, 칠성, 노원동), 이현수(복현1·2, 검단동), 김상선(관음, 읍내, 동천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20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의와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북구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대구미래 50년 향한 국비 전략·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

내년 국비확보 목표 8조4천억원
신속집행 1분기 목표 2조7447억
지역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 집중

대구시는 20일 김선조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의 '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4000억 원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 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올해 확보액인 8조1587억 원에서 2400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다.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의 목표액도 올해 확보액 4조751억 원에서 1200억 원 증액한 4조2000억 원으로 정했다.

지난 16일까지 집계한 투자사업 기준 내년도 국비 신청액은 4조4000억 원으로 신청 대비 반영률을 감안했을 때 3천억 원 이상의 추가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청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로 전년 대비 신청액의 5% 이상 증액 신청을 목표로 잡고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TK신공항 건설(총 2조5768억 원) △달빛철도 건설사업(총 4조5158억 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국비 신청액 증액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인 △신공항 철도 건설(총 2조7382억 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총 1조 원)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UAM 지역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총 3600억 원)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총 215억 원)△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총 200억 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관련 신규사업과 연계사업 등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시는 논의된 대책을 바탕으로 2월 말까지 추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3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4월에 국비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처안 편성이 시작되는 5월부터 정부예산 국회 의결이 완료되는 12월까지는 행정·경제 양 부시장 중심의 투톱(Two-Top) 체제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해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비 전략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위기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비 사업들이 발굴되고, 이 사업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동구, 24일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신암5동 경로후원회 지신밟기

2024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금호강 둔치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개최된다.

신암5동에서는 지신밟기 행사가 21일 신암5동 관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 대구 동구 안심교 아래 금호강 둔치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개최된다.

갑진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구민의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태우기행사가 금호강 둔치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안심백인청년회의 주최로 열린다. 프로그램은 지역 가수의 축하공연과 달맞이 기원제, 풍물놀이, 불꽃놀이, 세시음식(떡) 나누기를 비롯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와 불꽃놀이 순서로 진행된다.

대구 동구청은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및 화재 예방, 교통 대책 등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신암5동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지신밟기 행사가 오는 21일 신암5동 관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신암5동 경로후원회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이뤄진 '신오풍물단'이 관내 기관, 시장, 사업체, 가정 등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의 안녕과 다복을 기원하는 풍물 한마당을 펼친다.

또 지신밟기에 따른 후원금은 관내 가정의 달 선물 나눔, 삼계탕 행사, 경로행사 등에 사용된다.

이명순 경로후원회장은 "신암5동 정월대보름 맞이 지신밟기는 동네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되살려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개최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통해 액운은 모두 태워버리고 모든 구민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고,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대구시 군위군은 20일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12월부터 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했으나 센터 인력 수급의 어려움 및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직영운영이 쉽지 않았다.

이에 다수의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 채용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인 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센터명을 군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업무의 범위를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소규모 시설 급식소 전반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음달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간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무를 수행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대상별 식생활 교육, 위생·안전·영양 순회 방문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김진열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센터에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달성군, 2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취약계층에 신선 농축산물 지원

달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군은 오는 3월을 시작으로 '농식품바우처'를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에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지원에 나선다.

이번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와 보충적 영양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300여 가구다.

농식품바우처 신청 희망자는 20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농식품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3월 4일부터 8월 말까지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을 시작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등 지정된 농축산물이다. 바우처는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더프레시, GS25편의점, 온라인 농협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최재훈 군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사업이 수혜가구와 관내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청소년센터, 봄방학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달성군청소년센터는 지난 17일 초등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K-POP댄스를 배워보며 유익한 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오늘부터 댄싱머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에서 댄서의 진로분야와 미래전망을 알아보고 화려한 경력의 전문댄서가 새롭게 창작한 'NCT DREAM-Candy'의 이색적인 안무동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신성진 관장은 "K-POP이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핵심으로 자리잡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으로 청소년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다방면으로 소비되는 K-POP을 청소년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청소년센터는 마무리돼가는 봄방학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4일에 초등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데코의 세계, 나도 아트왕(데코 관련 이론교육 및 생크림 데코덴 필통 만들기)'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경주시가족센터, 테마파크에서 '가족사랑의날' 개최

경주시가족센터는 지난 16일 공간 테마파크에서 2월 '가족사랑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22가정 70여 명이 참석해 설치미술 및 조명아트 감상·포토존 즐기기 등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 참가자는 "아이들처럼 신나게 뛰어 놀았더니 힐링이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경주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하기 위해 온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가족사랑의 날'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민 중 초·중·고·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학업과 생업 등의 사정을 고려해 주말또는 평일 저녁 시간대에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 2024년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은?

경주에서 한달 살아보기
전입 대학생 장학금 등
다양한 전입지원으로
인구 늘리기 나서…

경주시가 갑진년도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선다.

시는 올해 타시·군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주에서 한달 살아보기'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타지역 거주민들에게 경주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주 인구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 특화 정책이다.

이번 모집은 7팀을 선발해 1팀당 숙박비 최대 150만원, 1인당 체험활동비로 최대 3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동국대 WISE캠퍼스, 위덕대, 신경주대 등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시 연 40만원을 지원하는 경주사랑 장학금 사업도 올해 실시된다.

전입 신고일 기준 3년간 경주 거주 이력이 없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주 지역 내 대학생이 대상자다.

이밖에 1년 이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2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감면 대상도 실시된다.

1년간 최대 월 5000원씩의 상수도 요금이 할인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리터 종량제 봉투 12개를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동궁원, 화랑마을, 토함산 자연휴양림, 오류캠핑장, 경주국민체육센터, 사적지 이용료 할인 등도 전입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이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경우 화장장 이용요금이 타 시민 80만원에서 경주시민 15만원으로 65만원의 할인 혜택과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과 '경주시 자전거보험'도 전입 신고 시 받게 될 특권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입 신고시 다양한 혜택에 대해 적극 홍보해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경주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해 전입 신고 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인구청년담당관 소속 공무원들이 시가 발간한 '2024년 경주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홍보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참가 선수 격려

19일 화랑FC, 한수원FC
경기장 찾아 선수들 응원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9일 '2024 GOLDEN City 경주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경주 스마트 에어돔'을 찾아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시에 따르면 '2024 GOLDEN City 경주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경주에서 열렸다.

경북도축구협회와 경주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경주시에서 올해 첫 유치한 대회로 전국 U-12 56팀과 U-11 52팀, 1700여 명이 참가해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 참가팀인 화랑FC와 한수원FC가 경기를 펼치는 스마트에어돔과 경주축구공원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했다.

주 시장은 어린 선수들을 인솔해 함께 경기장을 찾은 학부모들과 코칭 스태프들과 안전한 대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유치한 대회인 만큼,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는 선수단이 경주에서 불편함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어린 선수들이 부상 없이 즐겁고 신나게 경기를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어반스케치협회, 이웃사랑 실천한 작품전시회 성료

경주어반스케치협회
이웃사랑 작품전시회 성료

경주어반스케치협회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주시협회를 통해 라면 200박스(550만원 상당)를 경주지역자활센터, 자비실천회 등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월 16일까지 행복황촌 마을활력소에서 개최한 'Remember Gyeongju'展을 마치며 작품판매와 기부를 통해 마련했다.

전시는 경주어반스케치협회 소속 작가 35명이 참여해 지역 소재 노포를 주제로 83점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30점의 작품이 판매됐다.

협회는 판매 작품 1점당 라면 3박스를 후원 받았다.

최성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주시협의회 회장은 "우리 지역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경주어반스케치협회 회원들이 소중한 작품 기증과 재능기부를 통해 함께 조성한 기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자 경주어반스케치협회 부회장은 "회원들의 경주지역 노포 그리기 작품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작품 판매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도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동수 철도도심재생과장은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조성된 행복황촌 마을활력소에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어반스케치 노포전시와 함께 뜻깊은 기부까지 해주신 경주어반스케치협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시재생사업과 지역민의 문화, 복지증진 활동이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총력 대응

1천명과 산불진화차 전진 배치

경주시가 오는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놀이와 무속행위 등으로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해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서천둔치를 포함한 총 12곳에서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리며 6000여 명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시는 당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경주소방서, 경주경찰서의 협업을 통해 1천여 명의 인력과 산불진화차 등을 행사장에 집중 배치한다.

또 관습적으로 시행되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의 감시활동을 한층 더 강화한다.

경주시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대상 딸기농장체험 프로그램 가져

11가정 30명 참석, 딸기 따고
잼 만들며 가족 간 유대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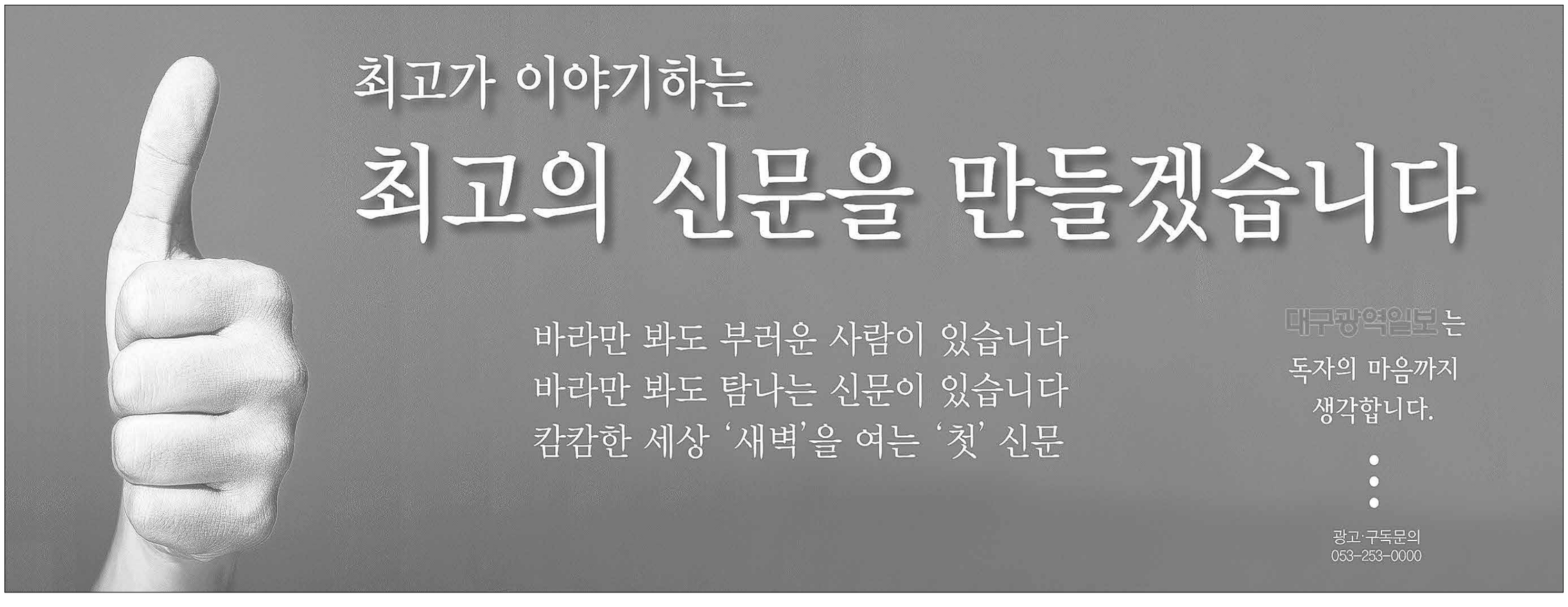
경주시가족센터는 지난 17일 서악동의 한 딸기농장에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새콤달콤 우리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자가정 11가정, 3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딸기를 따고 잼을 만드는 등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강동에 거주하는 한 참가자는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해 아쉬웠다"며 "맛있는 딸기를 같이 따고 먹으면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든 것 같아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이용 사항은 경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054-779-870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오도창 영양군수는 21일 오전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년 공무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1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송사과GAP 사업단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청송, 65세 이상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 실시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65세 이상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의 협조를 받아 이동검진 차량을 통한 흉부 엑스선 촬영 후 실시간 원격판독이 이뤄지며 유소견자의 경우 추가로 객담(가래)검사를 시행하여 결핵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윤병문 기자

영양군 수비전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개최

영양군 수비전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19일 수비면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과 의원, 소방공무원, 영양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용욱 신임 의용소방대장은 "지역에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현장에서 솔선수범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수비전담의 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윤동 기자

울릉 꿈나무어린이집 '우수 어린이 급식소' 선정

어린이 건강증진, 안전한 식생활 도모
위생·영양관리·안전 관리 철저

울릉군 꿈나무어린이집이 우수 어린이 급식소로 선정됐다.

포항시·울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등록된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 관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들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20개소 어린이급식소에서 '우수 어린이급식소'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했다.

꿈나무어린이집은 이번 평가에서 식생활 영양관리 및 위생·안전관리에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또 급식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 어린이급식소로 선정됐다.

최윤정 울릉 꿈나무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조리실 관리 및 조리실 직원들과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를 해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위생·안전·영양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식생활 도모를 위해 급식 관리 수준을 향상 및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윤환 기자

영양군,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영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23년도 안전한국훈련은 영양군-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대형화재·인파사고 및 산불 발생"이라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군청과 유관기관, 민간인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실시됐다.

특히 "토론 훈련과 통합훈련의 통합 연계훈련 실시",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용한 상황실과 재난 현장 간 실시간 유기적인 소통 체계 구축", "초등학생 참관단, 고등학교 밴드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의 훈련 참여"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안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안전한 영양군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준비한 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영양군은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안전한 영양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해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자(대학생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장학금 분야별 자격을 갖춰야한다. 성적우수장학생 등 9개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또는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문 기자

청도 이서면, 사랑의 집수리 재능기부 뿜뿜

주거환경개선 청도행복헌장 실천

청도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서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서면사무소와 함께 공동으로 사랑의 집수리 재능기부 봉사를 펼쳤다.

관내 대인기피가 심해 홀로 지내 온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상자를 발굴해 지난 19일 주택 보일러, 화장실 등 수리 및 청소 봉사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1인 가구로 지난 시절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다. 이서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다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이재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대인기피증이 심한 대상자인 만큼 마음의 상처가 많아 보였다"라며, "이러한 분들을 발굴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태 공공위원장은"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인 가구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지역공동체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행복한 이서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청도군 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확정

국비 125억 원 확보
주민 정주여건 개선 기대

청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배수개선사업'에 청도군이 신청한 '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기본조사 대상사업 지구로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화양읍 고평·소라리, 풍각면 덕양·송서리 일대 379ha 규모의 농경지에 대하여 2024년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25억 원(국비 100%)을 투입해 배수장 4개소, 배수문 4개소, 그리고 총 2.6km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청도군은 지난 2023년부터 당해 사업의 선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여러 차례 현장답사 등 협업을 진행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경북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 건의 등을 통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로써 사업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기본조사 대상지에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당해 사업지구는 그간 집중호우, 태풍내습 등 풍수해로 인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구로서 사전재해 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영농환경 개선, 경지 이용률 향상 등 지역 농업과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사업이 우리 청도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주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농업대전환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 경제발전과 함께 청도군민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조여은 기자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21일 오전 노계문학관에서 열리는 (사)노계 박인로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고령 대가야파크골프장 3~4월 휴장 시설정비

고령군 파크골프장(대가야파크골프장·다산파크골프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기휴장 한다.

대가야파크골프장(36홀)과 다산파크골프장(27홀)은 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풍광을 즐기며 라운딩할 수 있는 명품구장으로 대가야파크골프장의 경우 2023년 전국에서 19번째로 (사)대한파크골프협회의 공인구장으로 인정받아 전국에서 찾아오는 생활체육의 명소다. 군은 휴장기간 동안 훼손된 잔디를 보호하고 잔디의 생육상태를 관리하는 동시에 구장 및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다산파크골프장의 5월 정식 개장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영백 기자

영주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영주시는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5월 15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야외 소각행위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임에 따라 산불조심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단속은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2개부서 합동으로 2인 1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gksek. 3월 중에는 경북도와 합동점검이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의 야외소각행위, 산림인접(100m이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다.

특히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의 간이소각로가 있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ek.

마을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병행해 마을쓰레기 일제 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봉화 분천산타마을 특별한 겨울여행

한겨울 분천산타마을 성료
2개월간 관광객 8만 1천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봉화군의 2023-2024 한겨울 분천산타마을이 59일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성료했다.

이번 한겨울 분천산타마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장해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겨울여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일까지 약 두달간 진행됐다.

연일 계속된 한파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간 동안 약 8만 1천명이 방문해 겨울 대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특히 올해는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온 공인 산타클로스가 직접 산타마을을 방문하는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했다.

산타와 사진찍기 이벤트를 비롯한 이색 체험거리와 '행복나누기 찾아가는 사랑의 산타'행사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산타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핀란드 공인 산타와 사진찍기 이벤트 포토존으로 활용된 '산타의 방'은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산타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오감을 확실하게 만족시켜줄 다양한 공연도 펼쳐졌다.

개장 당일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총 3일간 테마를 설정해 인기가수와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콘서트를 진행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체험행사로는 분천 겨울왕국 팝업놀이터, 분천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분천추억저장소, 크리스마스 반짝마켓, 2024 크리스마스 우체통, 산타썰매, '메리, 크리스'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로 중지됐던 영동선 구간이 복구돼 백두대간 협곡열차 V-train의 운행이 재개돼 열차를 타고 눈으로 뒤덮인 백두대간의 빼어난 비경을 만끽하며 분천 산타마을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졌다.

봉화군은 분천 산타마을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것으로 평가하고 내년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기로 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연말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분천산타마을을 찾아준 관광객분들께 감사드리며, 테마형 관광지의 명성에 맞게 내실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 더욱 발전된 산타마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의성군이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각 기관에 부여한다.

의성군은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담당자 보호' 등 3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이은 쾌거다.

특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항목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법정민원 신속처리 등 평소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2024년도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 생태관광 중심 '영주 소백산' 명성 회복 나서

소백산국립공원 활성화방안 용역연구
市, 소백산 관광콘텐츠 개발 역점 추진

영주시가 소백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역점 추진하며 '생태관광 중심지' 위상 제고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 지역 1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돼 소백산 관광콘텐츠 개발의 기반이 마련됐다.

해제구역 일원에 산악관광 편의시설을 갖추고 옛 '영주 소백산'의 명성을 되찾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9일 '소백산국립공원 주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박남서 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의 용역 보고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장들과의 질의응답과 참석자 간 토의로 이어졌다.

이번 용역은 △사업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 △먹거리촌, 숙소 등 개발 가능성 검토 등 도입가능 시설 검토와 개발 종합 기본구상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한 지역 여건의 면밀한 분석으로 상위계획과 연계 가능성,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종합적인 분석에 집중한다.

시는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소백산 단풍나무류 경관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천혜 관광자원인 소백산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공원구역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해제됨에 따라 시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졌다"며, "휴게시설, 먹거리촌, 체험시설 등 다양한 계획으로 소백산 주변을 머무르는 관광지로 새롭게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환경부가 발표한 소백산국립공원 해제구역 중 영주 지역은 당초 0.19㎢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1705㎢로 대폭 확대됐다.

시는 공원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고 국회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찾아 공원계획 해제를 촉구해왔다. 최은하 기자

고령 '24년도 쌀 적정생산 사업' 신청

고령군은 5월 31일까지 '2024년 쌀 적정 생산 관련 사업(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식량자급률을 증진하고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은 동계작물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 5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 하계 지급 대상 품목이 기존 논콩에서 두류로 확대됐다.

하계 대상 품목으로 옥수수가 추가되고 두류·가루쌀 지급 단가가 ha당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제외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을 제외하고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쌀 적정 생산 관련 사업과 벼 감축 협약을 함께 신청해 일반작물, 하계조사료, 휴경의 경우 공공비축미를 ha당 300포대, 두류의 경우 ha당 150포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 관련 사업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개선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며 농가에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영백 기자

영천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

수출 농가·업체 애로사항 청취
수출분야 활성화 방안 모색

영천시는 지난영천시는 지난 19일 영천시 농식품 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진현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업지원 담당, 관내 수출 참여 농협·생산자 단체, 농식품가공협의회 업체 대표, ㈜경북통상 해외영업부 김병우 부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영천시의 수출 분야 지원사업 설명과 지난해 품목별 수출실적과 수출 동향, 가공식품의 수출 활성화 방안, 관계자 의견 제안 및 수렴 등으로 올해 수출실적 확대를 위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농식품 수출정보에 따르면 2023년도 영천시 농식품 수출 실적은 8396톤에 1만9879천 불로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홍콩 5개국으로 시장의 비중이 70%(수출금액 기준)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포도(203톤, 254만 불)는 대만 수출이 다소 증가, 마늘(88톤, 383천 불)은 지난해 미주시장에 첫 수출했다. 가공 농식품 주요 수출 품목은 김치(500만 불), 인삼음료(155만 불), 소스류, 비알콜 음료 등이 상당 비중 차지하고 있다.

김진현 부시장은 "향후 다변화되는 해외 수출 시장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수출정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봉화군,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공직자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

봉화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사업 추진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민선 8기 박현국 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주제로 인구감소 위기,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소통을 강조하는 공약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 눈높이 정보제공 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달 25일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6개 분야, 72개 공약사업을 점검했다.

공약실천계획서를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실천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예천군,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운영

예천군은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생활편의 증진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상시 운영한다.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5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홍보소통과 전산정보팀(☎650-6073)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읍·면 회의실,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요청한 곳으로 강사가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활용법 외에도 예천군 유튜브 등 군 SNS 홍보 채널 이용 방법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도 교육한다.

또 4월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통한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병욱 기자

문경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업소 모집

문경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대상 시설개선사업 참여 업소를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사업내용은 영업장 내 노후시설 등의 개·보수 및 청소비용과 위생설비 등 구입비용을 지원gksek.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영업주가 운영하는 식품위생업소 중 공고일 기준으로 현 소재지 내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업소이다.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전년도 연간매출액 5억 원 미만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금액은 최대 800만 원(자부담 20% 포함)으로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최종 2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식품위생과(☎550-6777, 6206) 또는 외식업지부(☎555-5193)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수 기자

포항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 2조 원 돌파…

7년 만에 누적 발행액 2조 365억 원

포항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시는 지난 2017년 발행을 시작한 포항사랑상품권이 20일 현재 2조 365억 원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포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와 달리 포항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발행·판매액만큼 지역 내 지출을 유도해 지역 최고의 지역 경기 활력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21년 지역화폐 우수사례 전국 우수상을 수상으로 특별지방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해 지역 경기회복에도 기여했다.

시는 올해도 포항사랑카드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설맞이 10% 특별할인판매를 시작으로 상시 7% 할인판매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내 실물 카드 없이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해 사용자들의 상품권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IM#) 가맹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매출 증대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포항사랑상품권은 개인 구매 시 월 40~50만 원(연 60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류(종이)형은 판매 대행 금융기관(165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약 2만 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신청은 포항시청 방문 또는 모바일 앱(IM#) 및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7년간 포항사랑상품권을 사랑해 주고 사용해 준 시민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포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통한 포항경제 견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하회마을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공동체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

사단법인 안동하회마을보존회와 사단법인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는 오는 24일 세계유산 하회마을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매년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은 상원(上元)이라고도 하는 명절이다.

예로부터 한 해의 풍작·풍어를 기원하면서 동제(洞祭)를 행하고 성공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운수를 점쳤다.

또한 오곡밥과 약밥을 먹고 부럼을 깨며 귀밝이술을 마시면서 가족의 건강을 기원한다.

이때 행하는 대표적 민속놀이로 달맞이와 쥐불놀이, 더위팔기 등이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 오전 6시 30분 화산(花山) 서낭당에서 동제를 행하며 시작된다. 뒤이어 국신당과 삼신당에서도 차례로 동제를 행한다.

이후 삼신당에서 양진당을 거쳐 충효당까지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에서 지신밟기 탈춤 한마당을 벌인다.

한편 낙동강변 하회마을 나루터에서는 삼신당의 소원지를 거두어 달집과 함께 태우며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사단법인 안동하회마을보존회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보다 풍요로운 삶을 성취하고 마을의 건강과 안녕, 풍년을 기원하고자 하는 하회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동제를 올리고, 화산 위로 솟아오르는 보름달만큼 넉넉했던 선조들의 나눔의 참뜻을 기리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민족의 세시풍속 보존과 계승의 장이 되길 바란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동하회마을보존회 전화(☎ 054-853-0109) 문의 또는 누리집(www.hahoe.or.kr) 공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준길 기자

경산 '교육발전특구' 공모 준비 착착

경산시는 지난 19일 '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강학 부시장의 주재로 박채아 도의원, 경산시와 경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지자체가 협력·보완할 부분을 논의했다.

특히 취약 아동들에 대한 맞춤 교육과 돌봄·늘봄학교의 공백 해결 및 대학자원 연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경산형 교육발전 특구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의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경산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2차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 시행 및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응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신경운 기자

성주군, 가락시장 주5일 시범운영에 따른 대책회의

산지 실정에 맞는 대책과 대안 제시 요구

농산물 품위 저하와 시세하락 우려 표명

성주군은지난 19일 가락시장 주5일 시범운영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운영일이 현행 주6일에서 주5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이미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 추진했다.

농민들의 반발 가운데 올해 3월 2일과 4월 6일 토요일 휴장을 계속해서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성주군 농업인 단체 및 산지 농산물 유통조직에서는 가락시장 토요일 휴장이 성주참외를 비롯한 관내 농산물의 품위 저하와 시세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이병환 성주군수와 강도수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농협 조합장, 농업인 단체 대표, 중매인 등이 참석해 가락시장 주5일 시범운영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향후 확대 운영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도수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은 "가락시장에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전국 도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가락시장의 산지 실정에 맞는 대책과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관내 참외 농가 중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농가 수가 상당하여 이틀 동안 휴장 시 성주참외 농가가 받을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군 차원에서도 참외산업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에 대해 주시하여 최대한 참외 농가에 악영향이 없도록 대응 및 지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재훈 기자

상주 취약계층 지붕개량 신청 접수

상주시는 지난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4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올해 17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435동, 비주택(창고, 축사) 30동, 주택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된다. 이경호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회

경주시의회
GYEONGJU CITY COUNCIL